2019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

2019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2020년 10월 25일 인쇄
2020년 10월 25일 발행

펴낸곳 (사)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주소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124(죽헌동)
전화 033 642 4982 ● 팩스 033 647 4046
홈페이지 www.yulgok.or.kr
전자우편 yulgokee@hanmail.net

* 이 책은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하실 수 없습니다.
* 비매품

2019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단

발 간 사

율곡 이이 선생은 한국 유교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문(文)·사(史)·철(哲)을 겸비하여 동방의 대현(大賢)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선생은 49년이란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철학, 정치, 교육, 역사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한 우리 율곡연구원은 그동안 다양한 학술활동과 출판사업 등을 통해 율곡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 지원을 받아 전담 사업단을 발족하여 율곡학 콘텐츠 개발, 율곡 문집을 활용한 한자·한문교육 교재 개발,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대중강연회 실시, 나아가 해외에 율곡의 학문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한국유교 레포트는 율곡학을 포함한 한국 유교의 연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학계에 보다 풍성한 한국유교 연구 성과가 나

오길 기대하며, 국제적으로는 우리 유교에 대해서 해외학자들이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쪼록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학문과 사상이 재평가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사단법인 율곡연구원 이사장

윤사순

서 문

유학이 처음 한국에 수용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유학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를 주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주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성리학이 정립되고 17세기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주자학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유학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부터 160여 년에 걸쳐 『주자대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19세기 이항로(李恒老)에 의하여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疑輯補)』가 집대성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의 사단칠정논쟁, 18세기의 호락논쟁, 19세기의 심설논쟁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논쟁의 주역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논적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서오경 등 유교경전과 주자학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한국학계에는 유학사상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

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논문과 저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비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각 논문과 저서들은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전공자들에게만 읽힐 뿐, 학계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단은 2015년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학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본 사업단은 개별 논문과 저서라는 구슬을 꿰어 한국유학이라는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치열한 논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학계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논쟁의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중국어판 발간을 계기로 한국 유학의 현주소

와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15일 명륜동 연구실에서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국제적 확산사업단 단장

최영진